멸망 구원열차, 구원 구원열차

(역대하 36:1~23)

17.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 칼에서 살아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22.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멸망 구원열차, 구원 구원열차>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멸망 구원열차, 구원 구원열차'
오늘 본문은 남 왕국 유다의 멸망 이야기 입니다. 17대 왕인 여호아하스로부터 시작하여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급전직하 한 나라가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맥락상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고레스 칙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것이 BC.605년의 1차 침공 때부터인데 거의 70년 이후 BC.538년에 바벨론을 망하게 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를 귀환시키는 칙령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역대기는 끝을 맺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망하게 되는 유다가 바로 선민의 나라인데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읽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거룩하게 구분하여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셨던 성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성전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마치 폐기물처럼 처분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선민의 나라 유다의 멸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그 마지막이 멸망으로 치달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구원열차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회복이 되긴 하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칠십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미 거의 다 죽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성전도 없어지고 맙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구원열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제목에서 말한 '멸망 구원열차, 구원 구원열차'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기로 작정된 사람이거나 이미 멸망한 사람들 중에서 멸망열차를 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의 끝이 멸망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면서 멸망열차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열차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며 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예외 없이 타고 있는 구원열차 중에 멸망 구원열차가 있고 구원 구원열차가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 열차를 타진 않습니다. 다만 멸망 구원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열차를 탔으나 멸망 구원열차인 것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차를 탔는데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구원이 무엇이기에 구원열차를 탔는데도 멸망하고 올바른 구원열차를 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당에 갈 것을 확신하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상태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갈 곳을 천당으로 생각했지만 하늘 아버지의 집인 천당은 지금도 있습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죽은 다음에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지금 바로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것도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착각에서 벗어나 지금 하늘나라로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기쁨을 이룬 상태가 날마다 반복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한 것과 같습니다. 한 번 결혼을 하면 결혼의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위치를 날마다 지킬 때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지만, 구원의 상태는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 추구하는 삶이 있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하고서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딴 짓을 하며 돌아다닌다면 법적으로는 결혼상태이지만 내용은 파괴되어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하고 기뻐하려 하고, 자식을 잘 키워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며 만족하고 기뻐하려 하고, 출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할 때에 하늘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자식도 형편없고 출세도 못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만족하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한 상태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열차가 ‘멸망 구원열차, 구원 구원열차’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레스 왕의 칙령은 귀환한 이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반포하게 한 것은 예루살렘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성전의 존재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었고, 성전을 재건해서 성전을 생활화할 때에 선민의 나라는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도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도 성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성전건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열차를 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공백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채움으로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 만족이 지속될 때에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지속되면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마음이 채워짐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구원열차를 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허무하고 시기와 분노가 생깁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채우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는 이 세상에서의 선택을 자기가 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스스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고 그와 반대라면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겠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돈이라는 이름의 구원열차를 탄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 담은 돈을 갖기 위해 실제로 돈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마음이 만족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기 위해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크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고 건강도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남편과 아내도 없습니다. 이처럼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족도 소중한 것인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육체가 없어질 때에 다 없어지고 맙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어도 내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지옥입니다. 마음은 비어있는데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옥에 갈 때에 지금까지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을 것이고 하늘나라를 볼 수만 있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옥에서 하늘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때는 채울 수가 없이 빈 상태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 영원한 두려움과 허무함과 불안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모두가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구원열차를 탑니다. 그 구원열차는 무언가의 이름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열차로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실재는 하늘에 계십니다. 돈이라는 구원열차를 타면 돈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믿으면서 붙잡게 되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재 하나님께 달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구원열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구원열차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의 형통이 구원열차입니다. 구원은 곧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에 의해서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구원 열차는 곧 이름입니다. 이름을 타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서 존재를 손에 넣기 위해서 존재에 닿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구원열차를 타고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돈이라는 구원열차를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돈이라는 존재에 도달하고 싶어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산당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하고 선민들이 성전 생활화를 해야 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의 구원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성전의 번제단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돈이라는 이름의 구원열차를 타고 있을 수 있고, 긍정의 힘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그리면서 거울을 보고 이미 되었다고 시인하게 됩니다. 또는 이미지나 비전이 나를 만족과 기쁨의 상태로 이끈다고 믿어서 구원열차에 내 마음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구원열차에 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지도 못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선민이 망했듯이 멸망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전과 그 의미의 완성이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올라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존재에 연결되는 고리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생활화가 이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이 성전을 내팽개치고 성전을 등지고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리고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열차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채워져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과 다르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만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도 영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열차이고 이 열차를 타고 그 이름의 존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열차를 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들을 구원열차로 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른 구원열차를 타고 있는 내 마음이 죽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의 구원열차로 바꾸어 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뚫으신 길 외에는 하나님 이름의 구원열차를 탄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 할 수 있는 길은 달리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열차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분화해서 정의하고 구분 짓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열차입니다. 내 마음을 진정으로 채우고 기쁘게 하고 행복

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이 구원열차입니다.
이 구원열차를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발견해서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 이는 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오 내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오고가는 이 교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나도 누리는 것인데 이게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열차를 타고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담습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하는데 다 멸망 구원열차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봐야 채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육체가 소멸되면서 같이 소멸되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내 마음을 아무것도 채울 것이 없는 곳에서 마음이 빈 채로 허무함 공허함 불안 두려움 등등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의 구원열차에 내 마음을 태우고 주님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선로를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구원 구원열차를 날마다 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전 생활화를 하지 않은 선민이 망한 것을 교훈삼아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 때에 나라가 재건되고 삶이 재건됨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의 구원열차를 타고 하나님께 도달해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미리미리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